Peace and grace from God be with you and dwell among you and my family as the gift of Christmas. We wish your best Christmas this year. Here are a few words with what and how we ended this year as “a most wonderful life” – inspired by 1946 movie, “It’s A Wonderful Life,” starring James Stewart. Without each member of our family and you our precious friend, the year 2014 shouldn’t be that wonderful.

Gideon, 17 in January, cannot wait for a long passage to describe about how wonderful it was. Here is a short list of highlights I can think of: 1) Cross country trip to New Mexico; 2) Started to drive more frequently looking forward to earning provisional driver’s license; 3) starting to go Gold Gym and working out; 4) starting my junior year in high school and instead of playing sports, I focused more of my time studying for SAT and ACT; 5) as a result of this I received straight a’s for the first time in my high school career; 6) we visited our old church, Oakdale Emory for the one hundred year anniversary of the historic chapel and met some old friends.

Jeremy, still 14, finished Junior High in Redland Middle School, and is now a freshmen in Magruder High School; taller than his older brother, Gideon. Because of this, he almost can’t fit into his own bunk bed! He started to go to Gold’s Gym, to become stronger like Gideon. He also joined the Marching Band in Magruder High School as the sideline, playing the bells/xylophones. Along with Gideon, they got 1st place in their 1st competition in their division. In their most recent concert, Jeremy played such pieces like Boreas, Joshua, and Concerto in d min with the violin and the piano during his performance. Next year, he will join PEAC (Pursuing Excellence in the Academic Curricular) program to focus more on college prep course.

My name is Theodore Atticus Park and am 7 on the 17th this month. I spent this year pretty much whole time to publish books of my own, folded many paper planes, and played a lot with mom, with dad, and with brothers, Gideon and Jeremy, especially with Jeremy. The books I published this year include: *Swords; The Day the Crayons Quit; Phone’s; The Men of the West; Super Heroes; Marvel Super Heroes; Green Lantern; Green Lantern: Green-Lantern Video; The Demons; Ike; Sonic; Lanterns Ring; Drawing Pad: Big Free Drawing Book; Acrobactit Chemmni Swift; Boy’s Only; World War II (2); Fast Cars; Poke-Mon; Arnold’s and Demon’s Undead; Fire Fighters; Snake; Halloween Bones; Battle Ship; Ike and Mr. Gamin Watch; Bar Graph Folder; Hangman*. I lost a couple of teeth and didn’t want to give them away. I give up dollars from tooth fairy and keep them. I enjoyed playing chess, baduk, janggi, soccer, basket ball, and badminton. Badminton is my favorite play now.

Mom, YoungHoon, 40s, had the second busy school year between two Prince George’s Public Schools, beginning 6 a.m. each day: one school in Bowie, MD on “A” week and the other in Greenbelt, MD on “B” week. Mom was also happy to offer a piano lesson for a handful students after school. Dad, DaeHwa, still at 40s, had the second year of his ministry in two churches of Washington East District of Baltimore-Washington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ith a strict and well-constructed daily routine, office hour, visitation and study hour, along with Sunday morning with 2 separate preaching opportunities at 9 a.m. and 11 a.m. He had a couple of global leadership seminars in April and August. Theodore came there with him again. Dad would like to have the year 2015, narrowing “gaps” - spiritual, materi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gap through his ministry.

Our summer trip to Desert South West was a homecoming to dad’s cultural emergent retreat of the year 1999. He wanted our family to encounter the rich heritage of diversity of the States as we as to face the life of diversity here in the States more. In Albuquerque, Santa Fe, Los Alamos, and other part of the Land of Enchantment, we learned about the life of pueblos, of the Spaniards, and of the today’s residents and tourists; art works and artifacts of early settlers; the works of the Franciscans; some military legacies (“The Manhattan Project,” etc.) and scientific facilities, VLA: Very Large Array radio telescope. We thought we could stay for minutes at Fire Valley but could not because of a swamp of flies. Gallup, AZ helped us learn the early days of the western movies and economic system around pawnshops. *Kiva*, a spiritual chamber of Native Americans, drew our attention how a culture has settled with other cultures that overwhelmed them over time. A family outing at Rock Creek National Park, Washington, D.C. was a good time with the whole family for cookout and fun time, a moment to gather around our own “kiva.” On the Thanksgiving weekend we visited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we felt another kiva there. May God bless your own “kiva” - we would call it “home” where you encounter diversity in unity! Merry Christmas!

즐거운 성탄과 새해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당신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빕니다. 금년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빌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2014년을 제임스 스트워트 주연으로 1946년에 개봉된 영화, "가장 아름다운 인생"에서 표현된 대로 보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족들과 귀한 여러 친구들없이 2014년은 그리 아름다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기디언 (Gideon Thory, 基潤)는 내년 1월 만 열 일곱이 되는데, 올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 길게 언급하고 싶지 않아 중요한 일을 나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금년의 하이라이트는 1) 미 뉴맥시코 주로 대륙횡단 여행을 한 것, 2)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받는 과정으로 운전을 시작한 것; 3) 골드 짐에 다니며, 근육을 키우며 운동을 한 일; 4) 고 2가 되면서 놀면서 운동을 하던 것 보다는 SAT와 ACT, 대입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 5) 공부에 집중한 결과 금년 첫 학기를 Straight "A" 학점으로 마친 일; 6) 전에 다녀던 "오우크 데일 연합 감리교회" 오래된 채플의 백주년 기념예배를 참석한 일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레미 (Jeremy Solo, 基沃)는 아직 열 네살인데, 지난 여름 레드랜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그루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현재, 형, 기디언 보다 크며, 이 일과 관련, 제레미는 현재 사용중인 이층 침대가 곧 쓸모 없어질 것으로 여깁니다. 기디언과 함께 골드 짐을 다니며 체력을 키우고 있구요. 고등학교에서 "관악대"를 시작하였는데, 부지휘자로 고교 미식 축구팀을 지원하여 벨과 실로폰을 연주해왔습니다. 홈 컴밍때, 전학년이 참석한 장학 퀴즈에서 팀을 1등으로 이끄는데 기여하였고, 최근 겨울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얼리니스트로 "Boreas, Joshua, 그리고 기타 다른 Conceltos"를 연주 하였습니다. 내년에, PEAC, Pursuing Excellence in the Academic Curricular (장학 특수반)에서 미리 대입준비를 위해 힘쓸 생각입니다.

내 이름은 띠오도어 (Theodore Atticus, 基澤)이고 이 번 달 17일에 일곱 살이 됩니다. 이번 해 저는 주로 책을 출판하고 종이 비행기를 접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판한 책으로는 "칼들," "크레용이 그 일을 다한 날," "폰즈," "서부 수퍼히로의 사나이들, 마벨 수퍼히로," "그린 랜턴," "그린 랜턴: 그린 랜턴 비디오," "악마들," "아이크," "쏘닉: 랜턴 링," "그림 책: 빅 프리 드로잉," " 아크로 발 케미 스위프트," " 오직 소년을 위한 책," "세계 제 2차 대전," "빠른 자동차들," "포키만," "아놀드와 뉴맨," 불사신," "다섯 전사들," "뱀," " 할로윈의 뻑다귀들," "전함," "아이크와 미스터 개민의 감시," "막대 그래프," "행맨"등. 올해 두 세개의 이빨이 빠졌는데, 이빨 요정에게 주고 싶지 않아 돈을 포기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둑과 장기를 두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축구, 농구, 배드민턴을 했는데, 주로 요즘은 배드민턴을 많이 합니다.

엄마, 영훈은 40대를 보내고 있는데, 프린스 죠지 카운티에 두 초등학교 음악선생님으로, A주는 Bowie에서, B주는 Greenbelt에서 이른 아침 6시 부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그 외에 몇 명의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아빠는 아직도 40대인 듯하며, 볼티모아-와싱톤 연회, 와싱턴 이스트 지방에 있는 두 개의 교회에서 아주 잘 짜여진 일정으로 일 (multi-site ministry)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띠오도어와 함께 올랜도 플로리다로 8월에는 엄마와 콜럼비아, 매릴랜드에 글로벌 리더쉽 써밋,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빤 2015년에,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는 "틈" - 영적, 물질적, 정치 사회 문화적인 틈을 줄이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미 남서부 사막지대로 향한 우리들의 여름 가족휴가여행은 아빠가 지난 1999년에 다녀왔던 문화기행을 다시 찾은 것이엇습니다. 아빠는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미국과 세계에 다가올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대비하고자 이번 여행을 준비하였다 합니다. 뉴맥시코 주에서 알바쿠키, 산타페, 그리고 로스 알라모스라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는 미국 인디언들의 삶과 문화, 천주교, 프란치스칸의 선교사, 현재 주민들의 삶과 여행자들이 만들어내는 현대 문화, 그리고 맨하탄 프로잭트와 같이 미국이 과거 비밀리에 준비했던 군사, 미래 우주 탐험을 위한 여러 과학 기관들을 관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외 여러 곳에서 묘한 자연환경을 구경- 위로는 해발 3,000 피트, 땅 속으로는 Carlsberg NP 석회암 동굴에서 수 마일 깊이 여행하며, 뉴 맥시코 주가 "그 별명이 말하듯, "찬양 받은 만한 땅"임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인디언 마을들에서 "키바"라는 신령한 공간을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령한 공간"을 중심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 가리라 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때 우리는 뉴욕에 있는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에서 그런 키바공간을 경험하였고, 워싱턴 지역 국립공원에서 우리 만의 키바 공간을 체험하였습니다. 올해 여러 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과 같은 신령한 공간에서, 즐거운 성탄을 보내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Best wishes for New Year that narrows gaps!